

이란, 외국인투자 활성화 전망

- 이란 최고투자위원회(Supreme Council for Investment)는 지난 8월 7일자로 5개 유럽계 기업에 대한 이란내 투자 허가를 승인하였음
 - 이란 경제재경부가 발표한 투자내용은 자동차 및 석유화학 프로젝트 등에 대한 투자로서 금액은 총 2억 8,039만 달러(2억 3,658만 유로와 4,883만 달러)에 이룸
 - 구체적인 승인내용을 보면
 - 영국의 Technocraft Motor Corp.社가 자동차 산업에 4,460만 달러를 투자하게 되는데, 투자프로젝트의 지분 71%를 취득하는 형식임
 - 이란의 석유화학 산업에 Hansa Chemie AG, Chematur Engineering AB, NPC Int'l 이 각각 3,429만 유로, 2,219만 유로, 1억 6,800만 유로를 투자하게 되며,
 - 프랑스의 Technip Coflexip SA社도 원유·가스개발 및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425만 달러를 투자하게 됨
 - 이번에 승인된 프로젝트를 보면 석유화학 및 원유가스 개발 분야가 대부분으로 외국인투자법* 개정을 앞두고 미루어졌던 프로젝트들이 이번에 일괄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보임
 - 이번 외국인투자 허가는 전례없는 대규모로서 외국인투자법 개정이후 활발해지는 외국인투자 동향을 나타냄
- * 외국인투자법 개정은 개혁파가 지배하는 의회와 보수파의 헌법수호위원회간의 대립으로 1년여가 넘도록 지연되었으나, 금년 5월 25자로 최종 개정안이 국정조정위원회를 통과하였음
- 투자의 최종승인 및 실제투자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, 외국인투자법 개정이후 이란에 대한 외국인투자가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신호로 간주됨

- 영국의 **Rio Tinto社**도 최근 Dashkesan 지역 금광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허가서를 이란정부로부터 취득하고 **2억 2,500만 달러**를 투자할 예정임
 - Rio Tinto社는 개정된 외국인투자법과 그 시행령, 이란 광산법에 따라 개발에 참여하는데, 이란내 용역개발회사인 **Sesco社와 7대 3의 비율로 지분투자**를 계획하고 있음
 - Rio Tinto사의 총 투자금액 2억 2,500만 달러중 5,000만 달러는 Sesco社에 대출 형태로 지원되며, 나머지 1억 7,500만 달러는 광산개발에 직접 투자될 예정임

- 발전산업 분야에서는 Jalal, Tabriz, Shirvan, Isfahan 등에서 **BOT*** 방식에 의한 발전소건설을 위한 사업자선정이 진행중에 있으며, 동 사업이 완료되면 5,000 MW 이상의 추가 전력생산이 기대됨
 - * **Build-Operate-Transfer** : 사업계약자는 발전소 건설후 직접 운영하고, 25년간 저렴한 가격으로 이란정부에 전력을 판매. 약정된 일정기간후 계약자는 이란정부에 발전소를 양도

- BOO(Build-Own-Operate) 방식으로 건설되는 **Zanjan 발전소건설 프로젝트 입찰에 89개의 외국기업이 신청**하였으며, 외국인은 이란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는 헌법조항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란기업과 합작으로 참여해야 함

- 한편, 이란정부는 2002. 8. 18자로 **독일과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**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에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는데, 2002년 6월부터 시작된 EU와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
 - 독일은 이란의 유럽내 최대교역국으로 양국은 **지난해 18억 6,000만 달러의 교역실적**을 기록하였음
 - 이란을 '악의 축'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란의 고립화 등 국제적 압력을 가하고 있는 미국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전개로 향후 미국의 반응이 주목됨

전문연구원 황수영(☎3779-6655)
 E-Mail : sooyhwang@koreaexim.go.kr